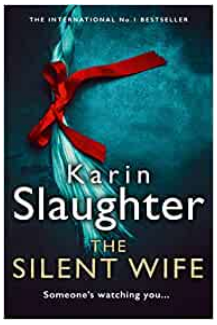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SILENT WIFE

가제 : 아내의 침묵 – 9건의 연쇄 강간 살인 사건! 진짜 범인을 찾아야 해!

저자 : Karin Slaughter

출판사: HarperCollins

발행일: 2020년 6월 23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영국 베스트셀러 1 위! 선데이 타임즈 범죄소설부문 베스트셀러 1 위!
* 전작들 120 개국에 번역 출간 및 영상화 예정
* "이보다 더 훌륭할 수 있는 소설은 없다." – 제프리 덴버
* "이 소설은 지금껏 나온 미스터리 소설 중 최고의 작품이다." – 제임스 패터슨
* "강간 사건과 관련된 낙인 행위와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지속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공감을 전달하고 있는 소설" – 퍼블리셔스 위클리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한 젊은 여성이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경찰은 즉시 사건을 조사했지만 중요한 증거가 될만한 흔적들은 이미 사라지고 난 후였다. 조지아주 수사국 소속 수사관 윌 트렌트는 이 사건이 8 년 전 잡힌 한 범죄자가 저지른 사건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범죄자에겐 합당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하지만 윌은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면서 거의 10년도 다 된 과거의 사건을 먼저 다시 조사해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과거 이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의 전 아내이자 법의학자인 사라 린튼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러나 윌은 이 사건을 통해 과거와 마주하게 되면서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소설은 그저 단 몇 줄로 희생자로 묘사되었던 성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여다보고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소설이자, 과거의 사건에 대한 주인공들의 내레이션이 교차됨에 따라, 절대 예측할 수 없는 촘촘한 줄거리를 가진 스릴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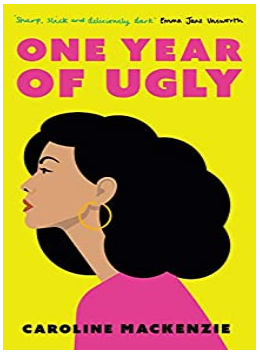
8 년 전, 대학 신입생 베키는 또래 학생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않은 처지였고 때문에 남들보다 몇 배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베키는 여느 때와 같이 도서관에서 밤을 새고 새벽 다섯 시 무렵에 기숙사에 돌아온 후 룸메이트가 냉장고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어 치웠다는 것을 알고 분개했다. 룸메이트와 다툼을 벌인 후 베키는 기분

전환 겸 달리기를 하기 위해 구멍 난 양말과 아직 빨지 못해 냄새가 나는 운동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베키는 곧 구멍 난 양말 때문에 발에 난 물집이 더 심해져서 달릴 수 없을 만큼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오전에 교수님과 중요한 일로 만나기로 한 마당에 시간을 알려줄 핸드폰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베키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근처 숲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곧 강철 같은 것에 머리를 맞고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그리고 엄마가 주신 소중한 핀을 잃어버린 채 병원에 실려갔고 숨은 붙어있었지만 두개골에 심한 손상이 일어난 바람에 의식은 없었고 척추까지 파열된데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반신까지 마비된 상태였다. 그리고 얼마 후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사라 린튼의 전 남편 제프리 톨리버를 용의자로 체포했고 이 사건은 이렇게 종결되는 듯했다.

그리고 8 년 후, 윌과 페이스는 교도소에서 일어난 폭동으로 숨진 수감자, 헤수스 바스케스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교도소에 방문했다가 한 쪽지를 건네받았다. 그것은 바로 8 년전 일어난 연쇄 성범죄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데릴 네스빗이 건넨 쪽지로 바스케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으니 자신을 만나달라는 요청이었다. 두 사람을 만난 데릴은 자신은 성폭행이나 살인 사건을 저지른 바가 전혀 없으며 자신이 감옥에 들어온 것은 가난한 신분에 전과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을 체포한 부패한 경찰들의 음모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데릴은 감옥 안에서도 지난 8 년간 있었던 베키의 사건과 비슷한 여덟 건의 다른 사건들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을 잡은 제프리와 그의 동료 레나가 당시 진짜 살인범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런 비극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윌은 제프리의 전 아내이자 자신의 전 여자친구이기도 한 검시관 사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강간 살인 사건인 알렉산드라 맥알리스터의 사건부터 함께 조사하기로 한다. 사라는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든 전 남편에 대한 분노를 느끼면서, 그들이 찾고 있는 연쇄 살인범이 수년 동안 계속해서 여성들만을 강간하고 살해한 후 그 죽음을 사고사로 위장하는 데 아주 능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두 사람은 범인이 망치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그들에게 마약을 투여했다는 점, 살해 후 기념품처럼 피해자들의 헤어 악세사리를 가져갔다는 점, 피해자들을 마비된 상태로 만들었다는 점, 시신을 주변 숲에 남겨뒀다는 공통점을 찾아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윌과 사라는 제프리의 죽음을 비롯한 끔찍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사랑을 재확인하게 된다. 실제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느끼는 공포, 성폭력 생존자들의 삶, 거부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카린 슬러터 (Karin Slaughter)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랑과 호평을 받는 스토리텔러 중 하나이다. 전 세계에 120 개국에 출간 되었으며 3,500 만 부 기록을 달성한 그녀의 아홉 권의 소설들 중에는 Edgar Awards 후보에 오른 바 있는 『Cop Town』과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소설인 『Pretty Girls, Good Daughter』 등이 있다. 또한 이 책들은 영화와 TV 제작을 앞두고 있다.



제목 : ONE YEAR OF UGLY
가제 : 불법 로맨스 - 가족의 적과 사랑에 빠졌다!
저자 : Caroline Mackenzie
출판사: The Borough Press
발행일: 2020년 5월 14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로맨스

* 넷플릭스 방영 예정!

* Commonwealth Short Story Prize 후보에 올랐으며 2018 년 Small Axe Literary Competition 의 단편 소설 부분 수상자인 저자의 첫 장편 소설!

* "이 책이 데뷔작이라는 것을 계속 잊게될 만큼 재미 있으며 예리한 시각과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소설" -「데일리 메일」

* "완벽하게 중독적인 웃음이 넘쳐 나오는 소설" - 「가디언」

하지만 이모에게는 집안을 또 다시 흔들어 놓을 아주 큰 비밀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모가 이 집안에 남긴 마지막 폭탄이나 마찬가지었다. 그리고 욜라는 이 와중에 절대 사랑에 빠져서는 안될 남자에게 속수무책으로 사랑에 빠지고 만다. 하지만 이 사랑은 분명 누가 보아도 위험천만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바보 같은 일이었다. 욜라는 정신을 차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을까? 불법 이민 문제, 가족, 위험한 사랑, 그리고 진정한 집이 무엇인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 재치와 유머가 가득한 소설이다.

팔라시오스 가족은 1 년 전 깜깜한 밤 배를 타고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 베네수엘라를 떠나 카리브해의 남동부에 위치한 약속의 땅 트리니다드로 왔고, 나름대로 낯선 땅에서 잘 적응 중이었다. 하지만 가족은 사랑했던 셀리아 이모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한자 큰 상실감에 빠진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온 가족들이 모여 셀리아 이모의 전남편 마우리시오의 집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주인공 욜라의 오빠 산초는 술만 진탕 퍼마시다가 일찍 세상을 떠난 삼촌들을 동경하면서 자신도 그런 허세 가득한 마초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았고, 셀리아 이모의 딸들인 아바와 알레한드로는 상복을 벗자마자 눈부신 화장에 잘 빠진 몸매를 서로 자랑하고 싶어하고 있었다. 그런 가족들 속에서 욜라가 염증을 느끼고 있던 와중 한 낯선 남자가 마당에 나타났고, 그 남자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공포에 사로잡힌 모두는 숨죽여 그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욜라는 셀리아 이모와 전 남편 마우리시오 사이에서 태어난 한 살짜리 아기 피델이 그 남자에게 안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때 셀리아의 아버지와 술에 취한 오빠 산초가 비틀거리며 그에게 다가갔는데, 그러자 그는 셀리아 이모를 비롯한 전 가족의 이름과 얼굴, 신상에 대해 정확히 읊었다. 그는 곧 총까지 들고서 자신은 이 지역 범죄 집단의 우두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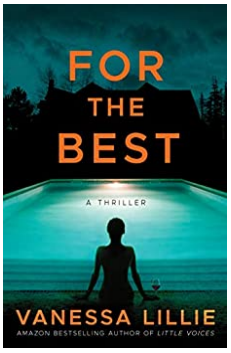
'어글리'이며 셀리아가 죽기 전 자신에게 빌린 돈에 대해 남자들끼리만 따로 이야기하자고 했다. 알고 보니 셀리아 이모는 어글리에게 빚을 지고 그에게 도움을 받아 베네수엘라를 떠난 욜라의 가족이 있는 이곳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이었다.

어글리와 대화를 마친 아빠는 그 빚을 갚지 않으면 모든 가족들이 위험해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불법 이민자들인 욜라의 가족은 이 일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빚을 갚으려면 어쩔 수 없이 어글리가 시키는대로 해야 했다. 그리고 같은 날 마우리시오가 다른 여자 사이에서 낳은 숨겨둔 딸인 바네사까지 찾아와 그와 함께 살겠다는 폭탄 선언을 날린다. 며칠 후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욜라네 가족을 다시 찾아온 어글리는 이번에는 자신의 오른팔인 '로만'과 함께였다. 그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구리빛 피부에 다부진 근육과 잘생긴 로만에게서 욜라는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도 욜라와 같은 베네수엘라 사람이었다. 로만은 욜라를 보자마자 욜라의 번역가로서의 커리어와 단편 소설 수상 경력까지 읊어대며 욜라에게 찬사를 던지며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는 욜라네 가족을 감시해야 하는 임무를 맡은 가족의 적이기도 했다.

어글리는 불법 이민자들을 베네수엘라에서 트리니다드로 배로 이송하고 그들이 트리니다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불법 서류를 만들고 여러 잡다한 일들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욜라네 가족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베네수엘라에서 온 모든 불법 이민자들이 정착할 때까지 임시로 욜라네 집에서 자비로 먹이고 재워줄 것을 강요했다. 여기에서 로만의 임무는 이 집에 머물며 이 일을 총괄하고 준비가 되면 이민자들을 새로운 곳으로 이동시키는 일이었다. 욜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로만에게 깊이 빠져 들었고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대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셀리아 이모가 남긴 일기장을 들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욜라는 위험천만한 새로운 삶에 뛰어들게 되면서 비밀스러운 사랑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 예기치 않게 임신하게 된 어린 소녀, 강인한 여성들에 비해 거칠기만 할 뿐 약하고 무능한 남자들, 낯선 곳에서 편견과 의심의 대상이 되는 이방인들의 이야기 대해 알게 된다. 욜라는 과연 이 위험한 사랑과 혼란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이민자들의 고달픈 삶과 휴머니즘, 따뜻함, 열정적인 사랑을 한 곳에 녹여 낸듯한 매력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캐롤라인 맥킨지 (Caroline Mackenzie)는 남편, 아들과 함께 트리니다드에 거주하고 있는 프리랜서 번역가이다. 트리니다드 국립 학자인 그녀는 4 년 동안 영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후 트리니다드로 돌아오기 전 전문 번역가 자격을 취득했고 더 광범위한 주제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의 단편 소설은 세계 여러 문학 출판물에 실렸고 2017 년에는 Commonwealth Short Story Prize 후보에 올랐으며 2018 년에는 Small Axe Literary Competition 의 단편 소설 부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 책은 그녀의 첫 장편 소설이다



제목 : FOR THE BEST
가제 : 그날밤의 진실 - 뒤틀린 심리, 뒤엉킨 관계. 반드시 밝혀내고 말겠어!
저자 : Vanessa Lillie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2020년 9월 8일
분량 : 297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20 만부 판매 기록을 세운 베스트셀러 『Little Voices』 저자의 신작!
* "과거의 어두운 비밀이 현재의 나를 사로잡으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매우 어둡고 뒤틀린 이야기로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결론에 이르기까지 숨이 멎을 것 같은 여정을 선사한다." - 『The Truth About Thead』의 저자, 에이미 임펠리제리

한 죽은 남자의 근처에서 줄리엣 워딩턴 스미스의 지갑이 발견되자 경찰들은 줄리엣을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한다. 줄리엣은 이 사건으로 지난 세월 고군분투해서 이룬 완벽한 가족과 화려한 경력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줄리엣은 결백했으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지만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사건 당일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결국 누명을 벗을 방법을 고안하고 그 일을 통해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는다. 그러나 줄리엣은 머지 않아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를 마주하게 된다. 줄리엣은 진짜 살인범을 찾아 낼 수 있을까? 살인범을 찾아내고 나면 줄리엣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자기 파괴적 충동, 오래된 비밀에 관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심리, 스릴러 소설이다.

바로 어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범죄자와 전과자 역시 건강한 시민으로 거듭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재단 '포 파운데이션'의 CEO 가 된 줄리엣은 어젯밤 있었던 재단 행사 이후 있었던 모임에서 취해 집으로 돌아왔고 다음날 아침 겨우 눈을 떴다. 줄리엣은 평소와 다르게 자신이 머리를 감고 잠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온몸에서 통증을 느끼며 침대에서 일어나서는 손톱 밑에 어두운 색의 더러운 무엇이 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줄리엣은 자신의 입술을 어루만지다 마치 누군가와 거칠게 키스라도 한 것처럼 입술이 잔뜩 부풀어 오른 것을 보고 순간 불안함에 휩싸인다. 사실 줄리엣은 평소에도 과음으로 인한 문제를 갖고 있었고 이번에도 늘 그렇듯 아무 것도 기억해내지 못했다. 게다가 옆에 당연히 있어야 할 남편 에단이 보이지 않자 혹시 술에 취해 그에게 실언을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지만 정말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았다. 다만 줄리엣은 어제 행사에 모인 제일 중요한 기부자들, 그리고 협력 관계를 맺기로 한 테란스 캐슬 교수의 얼굴만 떠올릴 수 있었다.

줄리엣은 남편을 찾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 갔다가 아들 피츠를 발견했고 피츠는 아빠가 우유를 사기 위해 나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곧 줄리엣은 누군가가 아주 세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고 이상하게도 불안함이 엄습해오자 혹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닌지 두려워졌다. 하지만 문 앞에 찾아온 라모스 형사는 남편이 아닌 줄리엣을 만나기를 원했다. 얼떨결에 라모스 형사를 따라 형사 조사실로 가게 된 줄리엣에게 라모스 형사는 어젯밤 포 파운데이션 모임이 끝나고 열린 뒤풀이 파티 장소 근처 골목에서 테란스 캐슬 교수가 머리 뒤쪽에 둔기로 추정 되는 물체에 맞아 사망했다고 말했다. 줄리엣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시신 근처에서 자신의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이 발견 되었다는 것이었다. 줄리엣은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는 살인 용의자가 되어 있었다.

줄리엣은 이 일로 재단 CEO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했고 경찰들마저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자, 스스로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브이로그를 통해 수사 상황과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기로 한다. 그리고 마침 이 사건을 취재 중이던 줄리엣의 전 남자친구이자 기자인 필립도 그녀를 돕기로 했다. 줄리엣은 브이로그를 운영하던 중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다. 유부남이자 명문대 교수였던 캐슬 교수가 같은 학교 제자 '카라 뉴얀'이라는 예술 전공자인 한 여학생과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줄리엣은 카라의 전 룸메이트이리디아를 만나게 되었다. 리디아는 원래 카라와 친한 친구였지만 리디아가 카라와 캐슬 교수가 불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계속 그 일에 대해 간섭했고, 카라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다고 말했다. 또한 어느 날 리디아는 카라와 캐슬 교수가 길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리디아를 강제로 데리고 나오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캐슬 교수가 화를 내며 리디아를 거칠게 밀쳤지만 카라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자 카라는 리디아와 절교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줄리엣이 리디아에게 카라가 다른 사람을 해칠만한 사람인지 묻자 리디아는 지하실에 남아 있는 카라의 괴이한 작품에 관해 들려주었다. 그 작품 속 인물은 한 소녀로 머리에서 심하게 피가 흐르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리디아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카라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학교에서 이 그림의 주인공인 여학생의 머리 뒤를 심하게 내리쳤으며 카라가 아마도 그 여학생을 죽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내용이 동영상으로 공개된 후에 사람들은 술에 취해 사람을 죽인 카라의 아버지나 카라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댔다. 게다가 줄리엣은 몰래 촬영을 하던 도중 캐슬 교수의 아내 데즈와 카라가 연인처럼 진한 키스를 나누는 충격적인 장면을 포착했다.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 카라는 정말 자신의 아빠와는 다른 사람인 것일까? 흥미진진한 사이코 스릴러 드라마이다.

<저자 소개>

바네사 릴리스 (Vanessa Lillie)는 마이애미 출신으로 지역의 유령 이야기를 조사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지금은 로드아일랜드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도시 주변에서 개최되는 책 행사와 문학 행사 운영을 맡고 있다.

제목 : DIAMOND HILL

가제 : 다이아몬드 힐 - 오늘날 홍콜의 자화상

저자 : Kit Fan

출판사: Dialogue Books

발행일: 2021년 5월 3일

분량 : 180 페이지

장르 : 일반소설

* 2018년 가디언지 선정 단편 소설상을 비롯해 아이리시 타임즈 베스트 시집상, 스티븐 스펜더 상, Northern Writers' Award 등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의 최신작!
* "극적이면서도 섬세하고, 세계적이면서도 지적이며, 역사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이야기" - 출판인, 샤메인 러브그로브

헤로인 중독으로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씻고 있던 '붓다'(소설 속 인물 중 한 명인 소녀 '보스'가 지어준 별명)는 어느 날 다시 자신의 고향인 홍콩으로 돌아왔다. 썩 내키지 않는 여정이었지만 그는 다시 돌아온 다이아몬드 힐에서 예전에 차마 두고 떠났던 것들을 되찾기로 한다. 다이아몬드 힐은 그의 진정한 고향이 될 수 있을까?

붓다가 다이아몬드 힐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들은 소리는 오줌 지린내가 나는 한 골목에서 들려오는 한 소년의 분노를 애써 삼키고 있는 듯한 울음 소리였다. 아이의 울음 소리 뒤에는 한 여자의 고함 소리가 이어졌는데 그녀는 소년을 '벌레'라고 부르며 계속 움직이면 귀를 잘라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마치 홍콩 영화 속 단역 배우처럼 생긴 그녀는 한 손에는 담배를 쥔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아이의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인지 가위를 들고 있었다. 순간 놀란 붓다가 여자의 옷에 묻은 핏자국을 바라보자 그녀는 그건 그저 닭의 피일 뿐이라며 '이 계집애'는 자기가 손을 대기도 전에 먼저 콱 죽어버릴 아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의자에 팔이 묶인 채로 앉아 있는 그 아이가 그저 체구가 좀 작은 10대 소녀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소녀의 무릎 위로 담뱃재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다가 덥석 그 여자의 팔을 쥐곤 자기의 전 직업이 미용사였으니 대신 소녀의 머리를 잘라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머리를 잘라주고 있는 붓다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 때 소녀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침을 뱉고는 거리로 달아나버렸다. 그러자 그 단역 배우처럼 생긴 여자는 붓다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고 그는 가위를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자신의 구두를 가리키며 전 애인들 중 하나인 '브루스 리'라는 남자가 선물해준 루이비통 구두라며 불쑥 자랑을 했고 공짜이니 자신과 함께 위층 침실로 올라가자며 그를 유혹하려 했다. 하지만 붓다는 자신을 향해 욕지거리를 퍼붓는 그 여자를 뒤로하고 다시 짐을 챙겨 거리로 나섰다. 하지만 거리에는 제대로 된 표지판 하나 없었기 때문에 이 곳은 미로나 마찬가지였고 차선과 길은 무작위로 꼬여 있었다. 대부분의 집은 나무 또는 금속 판잣집으로 모두들 위태로운 모습으로 간신히 서있는 듯했다. 게다가 도처에는 전선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으며, 차선 중앙에 있는 개방식 배수로에서는 표백제

냄새와 악취로 뒤범벅이었고, 담벼락에는 베트남 난민과 인도 이민자, 매춘부를 향한 차별적인 농담들이 가득 적혀 있었다. 이게 바로 1997년 홍콩이 다시 중국에 반환되기 이전 한때 '동양의 할리우드'라고 불렸던 당시 화려한 국제도시 홍콩의 이면, 판자촌의 모습이었다.

사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홍콩이라는 도시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스승 승려 다이시가 자신에게 방콕을 떠나 이곳으로 가라고 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홍콩에 살던 시절 그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잘생긴데다 교육까지 잘 받은 청년이 어떻게 거렁뱅이 신세가 되었느냐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아왔다. 그는 이 곳에서 구걸하는 법과 도둑질하는 법을 배웠었다. 이 도시는 그처럼 실패한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잔인한 곳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다이시가 정신 수양을 위해 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었고 아무리 기다려도 그가 돌아오질 않자 그의 마지막 명령대로 홍콩, 다이아몬드 힐에 있는 한 비구니 사원으로 오기로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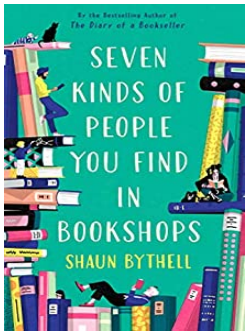
길을 헤맨 끝에 붓다는 드디어 목적지인 비구니 사원에 도착해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잠에서 깬 붓다는 젊은 비구니 쿼츠의 시중을 받으며 며칠 내내 잠에서 깨고 먹고 자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사원의 규율에 따라 이 곳에 도착한지 일곱째 되는 날 금식의 고통을 견딘 이후에야 비로소 사원 원장이 있는 중앙 사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원장인 아이언은 다이시의 청에 따라 붓다를 이 사원에 받아들이기로는 했지만 다이아몬드 힐은 곧 재개발로 모두 사라지고 대신 이 자리에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붓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판자촌에 살고 있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걱정이 덜컥 앞섰지만 원장은 이 모든 게 다 좋은 일이라며 기뻐하고 있었다.

얼마 후, 붓다는 근처 바에 들렀다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역 깡패 소년들과 어울리고 있는 그 소녀를 다시 만났다. 소녀는 단역 배우처럼 생긴 그 여자에게 붙들려 있던 당시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보였다. 그 소녀는 아마도 깡패 소년들 무리 속에서도 대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았고 붓다에게 성큼 다가와 자신을 '보스'라고 부르면 된다며 능청스럽게 친한 척까지 했다.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붓다는 다이아몬드 힐의 모든 가치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원장 아이언과 소녀 '보스'가 있었다. 또한 붓다는 사원장에서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쿼츠를 도우려다 위험한 일에 휘말리게 된다. 식민 통치 아래에 있다가 다시 중국에 반환된 후, 또 다시 중국 정부에 자치권을 뺏기고 혼란과 폭력으로 물들고 있는 현재의 홍콩과 과거의 홍콩을 제대로 들여다보게 해줄 소설이다.

<저자 소개>

킷 팬 (Kit Fan)은 홍콩에서 태어나 스물 한 살에 영국으로 이주했다. 그는 2011년 자신의 시집 『Paper Scissors Stone』으로 HKU 국제 시상을 수상했으며, 2006년에는 중국 고전시를 번역하여 스티븐 스펜더 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2011년에는 아이리시 타임즈 베스트 시집상을, 2018년에는 가디언지 선정 단편 소설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에 『Diamond Hill』의 초록으로 Northern Writers' Award에서도 수상했다.

NON-FICTION



제목 : SEVEN KINDS OF PEOPLE YOU FIND IN BOOKSHOPS
가제 : 낡고 오래된 책을 찾아서: 중고 서점 운영의 묘미와 중고 서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7가지 유형의 사람들
저자 : Shaun Bythell
출판사: Profile Books
발행일: 2020년 11월 5일
분량 : 144 페이지
장르 : 에세이

***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20여 개국에 출간된 베스트셀러 『서점 주인의 일기』의 저자, 션 비델의 신작**
*** "젠틀하고 인간적인 코미디가 바로 여기에 있다."- 「리터러리 리뷰」**
*** "신랄한 위트가 담긴 에세이, 다채롭고 마음에 쏙 드는 책읽기 경험을 선물하는 책"- 북 머치**

저자 션 비델은 스코틀랜드의 위그타운에서 20년 동안 한 중고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이 책의 첫 도입부에서 고서에 관해 쓴 해일리 루이스의 글을 소개한다. 해일리 루이스는 세계 무역에서 고서가 갖고 있는 역할은 재정적으로 그리 큰 의미를 자기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저자는 사실 '고서'라는 말을 '중고 도서'라고 바꾸면 고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한 수준'에서' '하찮은' 정도로 바뀔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 저자는 이렇듯 요즘 시대에서 중고 도서가 가진 특정한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난 2001년, 아마존이 온라인을 통해 할인된 가격을 판매하기 시작한지 4년 정도 지났을 그 무렵에 중고 서점을 시작했고 중고 도서의 세계로 들어섰다. 저자는 비록 재정적인 상황이 불 보듯 뻔히 보이는 악조건 속에 있지만 자신이 팔고 있는 중고 서적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더 넓은 고객층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자가 이렇게 힘든 현실을 감안하고서라도 중고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래 헤일리 루이스가 말했듯 고서적을 파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흥미로운 사람들이어야 했다. 그것이 곧 판매 수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자질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자가 중고 책방을 운영하는 것은 바로 흥미로운 고객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저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상점 문을 닫고 홀로 책방에 틀어 박혀 앉아 있다가 문득 자신이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을 그리워하듯 고객들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때로는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사람들이기도 했고, 때로는 공격적이거나 무례하기기도 했다. 저자는 고객들이 없으면 자신의 소득에도 큰 타격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나누었던 소소한 교류들이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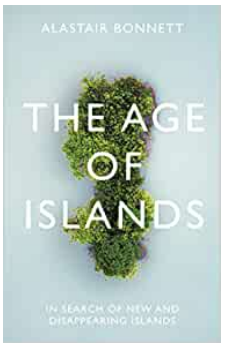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서점을 찾아오는 고객들을 총 일곱 종류로 나누었다. 이 분류 속에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따뜻함과 기발한 면모들이 담겨 있다. 그 중에는 육아로부터 해방되어 여유 시간이 생긴 덕분에 책을 읽기로 결심한 사람부터 스스로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 지 몰라 책방을 방황하는 사람, 책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부류, 음모론 신봉자, 가족 역사가 (주로 스코틀랜드의 중고 서적까지 찾아오는 미국인들), 뜨내기 여행객들 등 다양한 유형의 고객들이 포함되어 있다. 책 구경만큼이나 재미있는 중고 책방을 배회하는 사람들에 관한 유쾌하고 따뜻한 에세이이다.

<목차>

서문
1장. 전문가
2장. 젊은 가족들
3장. 밀교 신봉자
4장. 방랑자
5장. 수염난 연금 수급자들
6장. 절대 조용하지 않은 여행자
7장. 가족 역사가
8장. 직원 (보너스 챕터)

<저자 소개>

숀 비델 (Shaun Bythell)은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중고 서점 인 The Bookshop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서점에 앉아 주로 손님들의 이야기를 엿듣거나 유투브에 영상을 올리고 야외에서 아마존 킨들을 사용해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제목 : THE AGE OF ISLANDS

가제 : 생겨나는 섬들, 사라지는 섬들: 21세기 인공섬 건축 붐 현상

저자 : Alastair Bonnett

출판사: Atlantic Books

발행일: 2020년 5월 7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지리, 환경

* 영국, 미국, 독일, 대만 판권 계약 완료

* "독창적이고 환상적이며 지적인 책" - 선데이 타임즈

* 난개발과 기후 위기 속에서 사라져가는 섬들과 인간의 탐욕으로 새로 지어지고 있는 인공 섬들에 관한 르포

1516년 토마스 모어가 펴낸 『유토피아』에서 처음으로 '유토피아'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그 후 우리는 언제나 토마스 모어가 묘사한 바에 따라 유토피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저절로 섬을 떠올렸고 이 섬들은 우리가 반드시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리고 이제 이 유토피아에 대한 판타지는 현재 인공 섬들이 등장함에 따라 현실화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 섬들은 정말 우리 인간과 지구에게 영원한 행복을 약속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얼마 더 멀리 뻗어 나갈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인 뉴캐슬 대학교의 사회 지리학과 교수인 앨러스테어 보넷은 두바이의 한 과대망상증 환자가 만든 것 같은 똑같이 찍어낸 리조트들이 있는 섬들부터 시작해 홍콩의 끔찍한 공항 섬과 북해의 한가운데에 풍력 발전 단지 전력 허브 조성 계획 하에 건설 중인 독일-네덜란드-덴마크를 잇게 될 섬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인공 섬들을 직접 방문하여 해양 세계에 드리우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들을 추적한다. 그가 방문한 곳들에서는 관광이나 영토 확장을 위한 야망 때문에 새로운 섬들이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건설되고 있었고 이 와중에 정작 많은 소중한 섬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지거나 고통 받고 있었다. 이는 저자에게 참으로 괴이한 광경으로 다가왔고 구글 어스 역시 지구상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재빨리 추적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지도를 만들고 있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일뿐만 아니라 탐험가이자 지리학자인 보넷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연약한 이 새로운 섬들이 자신들이 가진 이야기를 통해 얼마나 강력한 생각을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는지 살펴본다. 스코틀랜드 호수에 자리 잡고 있는 고대 인공 섬인 '크라 노그'에서부터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중인 완벽하게 군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인공 섬과 한 때는 중앙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소중한 고향이었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있는 한 섬, 두바이에 있는 기이한 섬들, 홍콩과 실리제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우리가 여태껏 잘 알지 못했지만 사실은 이 시대에서 가장 긴급한 위기에

처한 섬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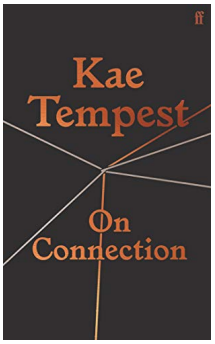
그는 특히 이 책에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의 모든 현대의 인공 섬들은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는 중국 정부가 미국이 20세기 동안 도시 건설을 위해 사용한 콘크리트보다 더 많은 양의 콘크리트를 2011년과 2013년 사이, 겨우 3년 만에 다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제일 가는 인공 섬 건설 기술을 갖고 있으며 영국의 총리 보리스 존슨이 자신의 계획대로 정말로 영국에도 공항 섬을 짓는다면 당연히 중국의 기술을 빌려올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인공 섬 건설 붐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만든 섬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무덤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인간이 가진 욕망으로 인한 땅도 모자라 바다에서 실행하기 위해 계획, 추진 중인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들이 어떤 생태적 결과를 가져올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읽기 쉬우면서도 흥미로운 책이다.

<목차>

서문
1부: 붐
우리가 섬을 건설하는 이유
플레보폴더, 네덜란드
세계, 두바이
첵 랍 콕, 홍콩의 공항섬
불 같은 크로스 리프, 남중국해
불사조 섬, 중국
오션 리프, 파나마
눈에 띄지 않았거나 우연히, 자연스럽게 생긴 섬들 : 또 다른 새로운 섬들
하아 헝가 통가-헝가, 아파이, 통가
헝가리 페블 레이크에 우연히 생겨난 섬
쓰레기섬
(이하 생략, 총 3부로 구성)

<저자 소개>

앨러스테어 보넷 (Alastair Bonnett) 영국 뉴캐슬 대학교 지리학과 교수이며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거나 숨겨져 있는 장소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 저작으로는 『Beyond the Map』, 『New Views』가 있다.



제목 : ON CONNECTION

가제 : 언택트 소통

– '창작': '코로나 블루'의 치료제,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소통 수단

저자 : Kate Tempest

출판사: Faber & Faber

발행일: 2020년 10월 1일

분량 : 144 페이지

장르 : 사회, 예술

*** COVID-19가 장기적인 국면에 접어들면서 무기력해진 사람들 위한 이 시대의 새로운 해독제로 '예술'과 '비대면 접촉'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회와 서로를 잇는 수단으로서의 '창작 활동'에 대해 이야기 하는 책**

*** The Ted Hughes Award의 수상자이자, 선데이 타임즈 베스트 셀러 소설『아주 새로운 고대인들』의 저자, 케이트 템페스트의 척 논픽션 작품**

이 책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연결'과 이 연결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결과인 '창의성'에 관한 책이다. 연결과 창의성에는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또한 창의성에 대해 몰입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인식하고 서로에게 더 가까이 연결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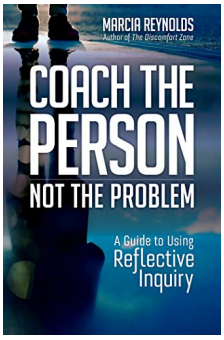
이에 대해 소설가이자 음악가인 저자 케이트 템페스트큭 도 다른 질문을 덧붙인다. 그것은 바로 창조적인 연결성을 감지하는 미세한 능력이 공감 능력을 키우고 나 자신과 세계 사이에 더 깊은 관계를 구축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저자는 사람들이 접촉하는 행위 자체가 큰 위험이 된 지금의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심각해 지고 있었던 이 분열의 시대에서 연결과 보편성을 요구하는 자체가 문제적인 행동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지금이야 말로 'Black Lives Matter' 또는 All Lives Matter', 'Trans Rights' 또는 'Terf Rights (트랜스젠더 여성은 페미니즘 운동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극단적인 페미니즘 운동', 'Leave' 또는 'Remain (브렉시트)'에 찬성하느냐 마느냐에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로 모여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한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유례없는 대 전염병 시대에서 공생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데 훨씬 유리하고 위험으로부터 훨씬 안전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자는 '우리가 가진 차이점은 중요하지 않다'거나 '우리는 모두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저자는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사회적,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맥락 속에 있으며 이로 인한 다양한 삶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저자는 우리 각자의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같은 인류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 역시 인정한다. 그리고 이 다름과 비슷함이 결국 창의성을 창출해내고 이를 통해 우리가 서로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창의성은

우리를 더욱 연결 시키도록 장려 할 것이고 이 연결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자기 안에만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내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책임감이 결국 내 아이들의 생존, 나의 생존, 타인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연결과 창의성은 인간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초 개인적이고 경쟁적이며 착취적인 이 사회는 이제 전염병 사태와 더불어 세계적 위기를 맞을 위험에 처해 있다.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차라리 무감각하게 지내는 것을 택했는지도 모른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심에 바로 창의성이 있으며 이 창의성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친밀함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 말한다. 또한 저자는 이는 예술 분야를 넘어서서 개인의 정신 건강, 정치 및 그 너머에 관한 통찰력을 얻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이 책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릴 책이다.

<저자 소개>

케이트 템페스트 (Kate Tempest)는 수상 경력을 가진 선데이 타임즈 베스트 셀러 작가이자, 시인이며 음악가, 레코딩 전문가이다. 그녀는 2013 Ted Hughes Award를 수상했으며 Costa Book Award와 BRIT Award, Mercury Prize 의 후보에 오른 바 있다. 또한 Poetry Book Society에서 Next Generation Poet으로 지명되기도 했다. 그녀는 2019 년 Rick Rubin이 제작 한 네 번째 스튜디오 앨범 인 The Traps and Lessons를 발매했다.



제목 : COACH THE PERSON, NOT THE PROBLEM
가제 : 코칭의 힘 - 문제 말고. 사람에 집중하라!
저자 : Marcia Reynolds
출판사: Berrett-Koehler Publishers
발행일: 2020년 6월 2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경영

*** 문제가 아닌 개인에 집중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대화법을 제시하는 리더십 코치 가이드**
*** "저자는 엄격하게 확립되어 있는 질문 기술을 넘어서서 고객과 함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코칭 방법을 소개하고 우리와 파트너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인간이라는 사실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ESMT Berlin의 조직 행동 부문 교수, 콘스탄틴 코토로브**

리더의 자리는 말 그대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인 동시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길을 잃은 사람들을 제대로 이끌 줄 아는 코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리이자, 그들의 불편 사항을 잘 이해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의 자리이기도 하다. 때문에 리더십 개발과 코칭 기술과 관련된 많은 인기 서적들이 시중에 나와 있고 이 책들은 흔히 좋은 질문을 하는 방법과 규칙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러한 일반적인 규칙들 중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을 요구하는 질문들 즉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엇을'로 시작하는 질문들을 할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리더십 코칭 전문가인 이 책의 저자 마르시아 레이놀즈는 이러한 질문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규칙들을 따르고자 하는 대부분의 리더들이나 비즈니스 코치들은 주로 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온 그 '사람'이 아닌 이런 질문 규칙에만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자는 단순히 답변만을 찾고 있는 이러한 질문 (question) 것이 아닌 우리에게 통찰력을 제공하는 문의(inquiry)를 더 중시한다. 이는 리더십 코치들이 자신을 찾아온 고객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고객은 단순한 질문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 의견, 신념들을 듣고 그들의 생각이 자신의 목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최신 뇌 과학 연구 결과들을 통해 어떻게 '성찰적 탐구활동(reflective inquiry)'의 효과가 나타나는 지 보여주고 혁신적인 대화의 기술과 대화의 구조, 조언 등을 제공한다. 다음은 바로 그 핵심이 되는 4가지이다.

첫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다.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기 전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선택을 이끌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두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검토하기에 앞서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둘째, 내가 들은 바를 다시 반복해서 말하라. 코칭은 단순히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성찰적, 반사적 탐구 과정이기 때문이다. 내가 들은 바를 요약해서 다시 말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이 촉발되는 순간을 공유하고 상대방이 반복한 문장과 강조한 주요 개념들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지금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물어라.

셋째,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상대방의 욕구에 대해 물어라. 아마 상대방은 처음에는 당장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함으로써 목적지로 가는 첫발을 뗄 수는 있을 것이다.

넷째, 통찰력에서 목표를 찾아라.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반드시 깨달음의 소리와 통찰력이 생길 것이다. 이 상황에서 코치는 반드시 그런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상대방이 배우고, 보고,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물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 과정에서 발견되면 당장 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상대방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물어야 한다.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상대방의 발전과 성장은 반드시 따라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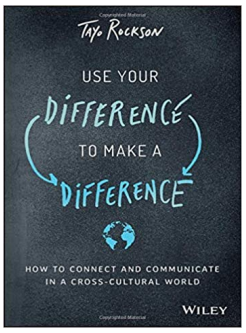
한 조직의 리더, 전문 코치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 동료들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고 협력하길 원하는 사원들을 위한 핵심 대화 기술이 수록된 책이다.

<목차>

서문: 질문과 문의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1부: 코칭 대화 란 무엇입니까?
1장. 사람을 코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2장. 미친 코칭 신념
2부: 5가지 필수 사례들
3장. 문제가 아닌 사람을 코치하라
4장. 액티브 리플레이: 검토를 위해 핵심 부분 반복하기
5장. 두뇌 해킹: 상자에서 보물 찾기
6장. 목표: 코스 유지
7장. '새로운' 그리고 '다음': 통찰력 코칭 그리고 헌신
(이하 생략, 총 3부 10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마르시아 레이놀즈 (Marcia Reynolds)는 공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 코치이다. 리더십 교육 및 코칭 전문 회사 인 Covisioning의 대표이다. 또한 그녀는 조직 심리학 박사 학위를,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녀는 전 국제 코칭 연맹 (International Coaching Federation) 글로벌 대표로 남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러시아, 중국 및 북미 지역에서 코칭 기술을 가르친 바 있다. 저작으로는 『Outsmart Your Brain』, 『Wander Woman』 및 『The Discomfort Zone』을 포함한 5권이 있다.



제목 : USE YOUR DIFFERENCE TO MAKE A DIFFERENCE
가제 : 다를수록 좋습니다 –'다름'과 '차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저자 : Tayo Rockson
출판사: John Wiley & Sons
발행일: 2019년 10월 8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경영

*** "저자는 우리 모두가 가진 차이점들을 강력한 힘으로 인지하고 이 독특한 개성들이 어떻게 분열된 우리들을 하나로 모으는 다리가 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 『Teach and Transform』의 저자, 리즈 클라인락**
*** "이 책은 직장과 현실 세계에서 현재 분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보고 어떻게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지 그 환상적인 아이디어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No Ego』의 저자, 싸이 와케만**

점점 더 다양해지고 다채로워지고 있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새로운 자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문화적인 경쟁력이다. 최근 몇 년간 직장과 학교 등 전 세계 여러 기관에서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는 점점 더 서로 연결되고 있으며 세계화된 이 세계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에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과제들을 던지고 있다. 현대의 비즈니스 및 학교 사회는 다양한 문화적, 국가적 배경을 가진 개인들과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가운데에서 새로운 의사 소통의 가능성과 의도치 않은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현상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생활과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흐름과 이에 따른 다른 위험성들을 탐색하는 방법을 이해하려면 탁월한 적응력과 미묘하게 다른 문화간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략적 리더십 및 컨설팅 전문 회사의 대표인 이 책의 저자 타요 락슨은 이 책에서 독자들에게 사람들의 차이점들을 포용하며 서로를 연결하고 상호 이해의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그는 차이점이 가진 영향력을 활용해 무의식적인 편견을 뛰어넘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업무 환경과 보다 관용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재 수단을 제공하며 국경을 넘어 원활히 의사 소통을 실행하는 방법, 다양한 인재들을 끌어 모으고 관리하는 법, 각 구성원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들을 보여준다.

이 책에서 저자는 팀워크, 리더십 스타일,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 피드백을 주고 받는 방법, 동기 부여, 공급 업체 및 고객 관리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업무 현장, 학교에서 필요한 포괄적인 주제에 대해 다루며 전문가들의 지침을 제시하고 국제적인 환경에서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 설명한다. 따라서 이 귀중한 자료들 속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지침들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문화적 차이를 초월한 자기 인식을 갖춘 의사 전달 기술, 마케팅 플랜, 비즈니스 전략을 개발하라.

둘째. 다른 배경을 가진 동료가 다른 동료들 및 고객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집단 및 문화적, 경제적으로 다른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전체의 조직을 위해 문화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생님들이 다른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라.

점차 다양한 색깔들로 채워지고 있는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조직의 교육 담당자, 부모, 지도자, 관리자 또는 팀 구성원들 위한 책이다.

<목차>

서문
내가 이 책을 쓴 이유
연결이란 무엇일까?
이 책을 활용하는 법
1부: 교육
1장. 교육
2장. 스스로를 교육하라 (내적인 문화)
당신의 편견은 당신의 어떤 점을 알려줄까?
무의식적 편견에 대한 이해
편견 구분하기
나의 감정적 트리거 이해하기
이 책의 목표는 배우고, 버리고, 다시 배우는 것
3장.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핵심 가치 표현하기
우리의 편견과 가치는 우리를 어떻게 도울까?
감성 지능의 역할
4장. 환경 교육
(이하 생략, 총 29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타요 락슨 (Tayo Rockson)은 다양성, 포용 및 사회 정의 전략을 통합하여 기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전략적 리더십 및 컨설팅 회사 UYD Management의 CEO로 문화간 역량과 국제 브랜딩 전략 부문의 유명 권위자이다. 그는 교차적 문화에 대해 다루고 있는 'As Told By Nomads'라는 인기 팟캐스트를 통해 유명해지면서 전세계의 미디어에 소개 된 바 있다.

제목 : THE CLUTTER REMEDY
가제 : 모든 것은 정리정돈부터 - 정리된 환경, 정돈된 마음
저자 : Marla Stone
출판사: New World Library
발행일: 2019년 12월 3일
분량 : 176 페이지
장르 : 실용, 자기계발

***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정리된 삶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똑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북리스트」**
*** 전문 심리 치료사가 알려주는 무질서하게 어질러진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법뿐만 아니라 어지르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고 패턴을 분석하여, 아끼는 물건을 버리지 않고도 잘 정리된 환경과 삶을 살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는 책**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기 직전 갑자기 중요한 물건을 찾아야 하는데 그 물건이 없는 순간 우리는 모두 갑작스런 혼란에 빠져 불안하고 초조해지기까지 한다. 또한 실패한 시스템 하에 계속해서 집안 곳곳에 쌓여만 가는 물건 더미들 우리를 미성숙한 인간으로, 지저분한 인간으로 느끼게 만든다. 물건을 이리 저리 쑤셔 넣고 서랍에 마구 밀어 넣거나 일정한 장소를 정하지 않고 여러 물건들을 아무데나 두는 생활 습관은 결코 내가 아끼는 물건들을 잘 보관하는 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햄스터의 쳇바퀴처럼 계속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이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대신에 계속해서 새로운 물건들을 탐내게 만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나에게 기쁨의 불꽃을 주지 않는 모든 물건들을 그냥 다 버려야만 하는 것일까?

전문 심리 치료사이자 라이스타일 전문가인 저자 마를라 스톤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한다. 마를라 스톤은 정리란 단순이 옷장이나 식료품 저장고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녀가 생각하는 정리란 혼란스럽고 비 조직화된 환경과 관련된 원인과 더불어 개개인의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우리를 둘러싼 공간은 결국 우리 내면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은 이 어지러운 환경의 원인을 더 깊이 바라볼 동기를 얻게 된다.

저자는 일단 한 개인의 마음 상태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사람이 머무는 공간에 그 문제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난다고 말한다.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마음만큼 정신 없고 통제 되지 않는 어지러운 공간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내면의 자아는 내가 가진 물건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스스로의 겉모습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는 단순히 깔끔한 공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 물건을 처분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이런 습관을 갖추어도 결국 물건에 대한 애정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정돈된 삶을 사는 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대신 저자는 신선하고 친근한 접근 방식을 통해 단순한 정리를 넘어서서 내 자신의 가치를 파악하고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이에 맞는 최적의 환경을 시각화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내 마음의 공간을 아름답게 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내 주변 환경을 가꾸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목차>

서문
1 장 : 이상을 조율하기 어수선함으로 부터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
2 장 : 말을 바꾼다면 당신의 인생도 달라질 것이다
3 장 : 믈건 더미들을 정리하는 전략
4 장 : 방별로. 침실,주방, 욕실, 사무실
5 장 : 계절별 전환, 연중 내내 정리된 삶
6 장 : 공간 재창조와 활력
7 장 : 벽 때리기, 무단수집, 슬픔,및 기타 주요 장애물 및 장벽들

<저자 소개>

마를라 스톤 (Marla Stone)은 정리, 디자인, 기업 교육 및 라이프 스타일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I-Deal-Lifestyle의 대표이다. 그녀는 사회 사업 및 심리 치료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군 직원 및 그 가족들을 도운 바 있으며 전문 컨퍼런스장 및 소셜 미디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